

유리병 속 작은 자연, 테라리움 만들기

개발자	지경미(설악산생태탐방원)_응용
공기 정화와 인테리어 두 가지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작은 숲속 테라리움. 작은 유리병 속에 키우는 원리, 즉 물과 산소의 순환으로 식물 스스로 자라는 원리와 물이 식물의 뿌리로 흡수되고 기화되어 테라리움 유리병 벽에 물방울로 맺혔다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통해 물과 산소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 자연을 이해하는데 효과적이다.	
활용대상	초등학생 이상
활용시기	사계절
준비물	테라리움 키트(흙, 유리병, 식물 등)
소요시간	1~2시간
제작비용	없음





운영사진_테라리움 소개



운영사진_테라리움 만들기

운영방법

1. 테라리움이란? - 테라리움 어원소개
2. 테라리움의 원리 소개 - 스스로 자생하는 연구결과
3. 테라리움의 흙 소개
4. 테라리움의 주요 식물 소개(적합한 식물)
5. 테라리움 만드는 순서 안내
6. 테라리움 만들기 및 완성
7. 테라리움 보관 및 관리 방법 안내
8. 뒷정리하기

향후방향

돌과 흙을 만지고 식물의 촉감과 향기도 맡아 볼 수 있어 사회적, 정서적, 교육적 원예치료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며, 자연과의 친밀도를 높이고 소중한 자연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생태복원의 큰 전환적 생각을 만들고 실천하는 계기로 다져 식물에 대한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깨닫게 한다.

참고내용

※테라리움에 적합한 식물

주로 공기정화 식물 중 용기 안에 심을 수 있는 작은 식물이 주로 이용된다. 높은 습도와 일정한 온도, 실내 공간의 낮은 광고에서도 생존이 가능하며 식물의 생장이 느려 자라 자라지 않는 식물류를 선택한다. (싱고니움, 레트스타, 화이트스타, 페페 등)

주의사항

- 살아있는 자연물이므로 부리가 보이지 않게 잘 심어주도록 유도한다.
- 보관법 및 물관리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주어 살아있는 생물임을 숙지시켜준다.